

여 “민생 방해” 야 “巨與 독주”...총리 인준·추경 대치 격화

민주 “이시간부로 민생 전면전 선언”...국힘, 독주 프레임 부각 여론전

여야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김 후보자 인준 표결과 추경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낙마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추경에 대해서도 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총리 인준과 민생 추경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의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회방 놓은 것도 모자라서 법에도 없는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고 ‘몰지마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법을 무시해서라도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대국민 선포고이자 명백한 대선 불복이고 거짓 선동 정치 쇼”라고 비난했다.

또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경제를 망치고도 아무 반성 없이 총리 인준과 신속한 추경을 방해하는 민생 방해세력”이라며 “대선에 불복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국민의힘은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29일) 하루 뒤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하려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으나, 우 의장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다만 우 의장은 “늦어도 오는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여당과 범여권 정당의 단독 처리가 유력하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준안 및 추경안 처리 ‘데드라인’을 3일로 거듭 제시하면서 “지금은 야당에 선물을 줄 시간이 아닌,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에게 선물을 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김 후보자 인준 표결과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면 사실상 저지할 수단이 없는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한층 부각하며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안 심사 첫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시작하기 직전 “여당의 일방적 의사전행이자 졸속 심사”라고 반발하며 회의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청년·탈북민·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청문회’를 열고 재산·학위 등 관련 의혹을 재차 부각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희정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무자료, 무대책, 무자격(이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는 (인선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에는 잘 못 느끼지만, 국민은 다 보고 있다”고 썼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규탄 농성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우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중재자’ 역할을 요구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됐던 내용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게 국회의장으로서 우선되어야 할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청문회를 개최한 데 대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합당한 법적 조치를 법률위원회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관리형 비대위’...김용태 퇴임·송언석 위원장 겸임

8월 전대 김문수·한동훈 출마 관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식이 된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기는 이날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성격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또 “짧은 기간이라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있지만, 비대위에서부터 당이 환골탈태해 투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의사결정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의총에서) 말했다”며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반대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비대위원은 초선전과 3선, 4선 이상 의원과 원외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권 주자로는 우선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대선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김 전 후보와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거론된다. 김 전 후보와 한 전 대표

는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후보의 경우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만큼 바로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주위에서 출마 권유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의 경우 대선 후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고 현안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원내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나 의원은 대어 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서며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수장의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 현 단일지도체제의 전환 여부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단일체제는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선출하는 것이고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을 뜻한다.

당 일각에서는 다음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때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당권 주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번 추경은 성장 1%대 회복 위한 긴급 수혈”

안도걸, 국회 질의서 비판 반박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을 둘러싼 각종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번 추경은 경제성장 1%대 회복을 위한 긴급수혈”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산업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를 지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는 경제성장장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도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



라 ‘위기 해결사’이자 ‘혁신 기업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재정운영도 국가혁신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는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적자 관리 시제도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4-5년에 걸친 ‘경기변동주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이형일 제1차관은 “경기변동주기에 맞춰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국가재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내란수괴 尹, 특혜 요구하며 특검에 생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10시간 가까이 말도 안 되는 꾀변을 늘어놓으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계서는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고 한다”며 “내란 특검

은 윤석열이 (추가) 소환과 조사를 거부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비공개 조사 요청과 조사자 교체해 달라는 요청에 이어서 출석 기일 변경까지 해달라며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내란 수괴가 제 한 몸 지키겠다며 온갖 법 기술을 부리는 모습이 참으로 우한무지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 수사에 응하는 적하면서 수사 방해를 일삼고 있

다”며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총리 인준을 불모로 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내란 청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실내에 작은 텐트와 선풍기를 가져다 두고 맛있는 김밥도 먹는 나 의원의 농성을 두고 무더위를 피하는 캠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꼬았다.

/오광록 기자 kroh@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